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 :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김인숙*

동명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교수

Mitigate the Relational Aggressive Attitude of the Elderly through the Convergence Program of Tea Culture Treatment Program : For the elderly women who use the Senior Citizen's Day Care Center

In-Soo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Business Administration, Tongm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시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여성노인들 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로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사전검사 평균보다 사후검사 평균에서 0.21 낮아져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노인주간보호센터, 관계적 공격성,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 여성노인

Abstract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tea culture treatment program to mitigate the relative aggressiveness, the research will target 10 women aged 70 or older who use the P City-based Senior Citizens' Day Care Center to apply the tea culture treatment program to alleviate the relative aggressiveness of the elderly and examine its eff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core of reactive relational aggressiveness and leading relational aggression is 0.21 lower than the pre-exam average, indicating that the leading relational aggression of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e tea culture therapy program is reduced than before the program.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for alleviating aggression among senior citizens using the Center for the Elderly.

Key Words : Senior Citizen's Day Care Center, Relational Aggressive, Tea Culture Treatment, Convergence Program, Women's Elderly.

*교신저자 : 김인숙(ts3260@hanmail.net)

접수일 2020년 9월 7일 수정일 2020년 10월 27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29일

1. 서론

개인과 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관계'는 모든 세대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연인이나 직장 동료 또는 집단과의 관계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관심 영역 또한 변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1] 점차 성인으로 갈수록 학습의 영향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임을 인지하게 되면서 외현적 공격행동이 줄어들고[2] 관계적 공격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연구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관계적 공격성은 관계손상을 목적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인을 배제시키거나,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평판을 해치려는 비신체적 공격성을 의미한다[3]

노인들은 생애발달의 이전 단계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진 가운데, 지난 2015년 7월, 상주에서 할머니들끼리 푼돈내기를 건 후투놀이에서 갈등이 상대방에게 '농약 사이다'를 건넨 사건에서처럼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들 간의 관계적 공격성은 피해 당사자의 상처의 정도가 심하며, 이러한 상처는 역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노인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방법을 택하거나,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고자 하는 1차원적 욕구 속에서 행동까지 동반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4]. 노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활동하는 노인 이용시설과 기관에서 노인들이 관계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면 다른 노인들과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노인과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5]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동거동락하는 동료 노인을 괴롭히는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 이용 기관의 집단적 활동은 앞서 언급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노인 이용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계적 공격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적합한 개입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이 일어나는 곳은 다양하나, 노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다름 아닌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이용기관이며, 공식적인 사회적 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그들의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관계가 이뤄지는 대표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이용기관

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비롯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참여 활동의 장으로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인 이용 기관은 노인들의 집단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관계적 공격성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노인이용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자의든 타의든 그들 간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러한 공간이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관 내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 즉, 종사자들과 노인들 사이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지지하며 긍정의 관계를 맺는 치유의 장소도 될 수 있으므로 이곳은 매우 중요한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고령화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와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사회로 인해 반드시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의 증가로 수발 부담이 사회적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회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부양과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care)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수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종래 가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던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무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돌봄 대상노인에게 직접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과 함께 시작된 노인주간보호 제도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노인주간보호센터이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일정과정의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노인들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측면이라 평가하였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관계적 공격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 이용기관인 노인재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완화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전문적이고 노인의 다양한 관계적 공격성을 완화하기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탐색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주간보호센터의 특성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보호 및 일시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간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뜻한다(노인복지법 제38). 주간보호센터의 목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및 경감을 위함이다[7].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과 가족을 대신해 일상생활 지원 및 급식 등의 요양서비스를 일 14시간 이하(12시간 이상 수가) 동안에 제공되며, 가족에게는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노인과 가족이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중의 하나이다[8]. 이러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기원 등급)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 정의한다[8].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 내용으로는 첫째,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로 일상생활지원(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과 일상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으로 구분된다. 둘째,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은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등이다.

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각종 기능회복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범위는 급식서비스, 여가생활서비스, 이용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의 기능회복, 의료보건, 임상치료 및 복리후생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노인은 일상생활을 함께 보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생활속에서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기제가 나타나는 유사기관을 연구한 바가 있다 [9]. 부정적인 기제로는 여러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관에서 노인 간의 관계적 공격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의 정의를 Crick 등(1995)[3]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신체적이며 언어적 폭력을 직접 행하는 것을 외현적 공격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은밀하고 간접적 형태로 피해를 주는 행동 및 언어의 사용과 같은 형태를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다양한 연령대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대인관계 단짝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의 청소년들에게서도 발생하고, 회사조직의 동료 관계에서도 일어나며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 특히 복지관 이용노인에게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은 잘 알려지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며, 입씨름, 모욕, 파벌 등으로 위협하고, 거짓말, 무시하기, 험담하기, 친구관계 조작하기, 소문 퍼뜨리기,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음모꾸미기 등 간접적으로 사회적 외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전략이 내포되어있다[10,11].

이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가해자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영역 다툼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행동들은 종사자 혹은 연구자의 확인이 어려운 직접적인 방법인 집단에서의 배제, 공공연한 따돌림 등으로 표현되는 바로미터의 현상이기에 된다[12]. 이렇듯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적 공격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13] 특히 이전에 수많은 경험을 한 기관 이용 노인은 나이를 먹을수록 복잡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어 공격적 행동에 대한 자신의 위협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간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낸다[14]. 이는 결국,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비롯한 노인 이용기관시설에서 노인 사이 비롯되는 부정적 관계인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치료 융합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관계적 공격성으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정된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관계망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3 차문화치료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Table 1〉 Tea Culture Treatment for Relational Aggressive Mitigation Program

Session	Activity	Contents	Preparation materials
1	Knowing about each other's thoughts Education for understanding between the couple	-Purpose and content information of activity -Having tea together -Education for understanding between the couple -Education about how to better communicate and about the importance of marital relationship -Sharing feelings about the activity	name tags, pens, 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2	Tea story	-Drinking tea -The origin of tea, the efficacy of tea, Experience the type of healthy tea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 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3	Gymnastics, tea -Meddling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To meditate through a car, to become a car and exerciset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 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4	Listening, empathizing, happy Story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To reminisce about happy events and to listen carefully and sympathize with each other through tea ceremony experience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 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5	Exposing anger through past burns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Expressing anger with past recollection arrangement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 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6	To forgive someone who has been hurt.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To face and express a wounded person on an empty table arrangement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 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7	To seek forgiveness from the person who has hurt you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To face and express a wounded person on an empty car table arrangement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 tea, tools of teaceremony, teaconfectionary
8	Tea Gratitude Wrapping up with a letter	-Tea drinking, gymnastics, tea-meddling -Gather together to write a thank-you letter in tea arrangement -Share your thoughts, meditate and finish	name tags, pens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에게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노인들의 다양한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돕는 전문적인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P시 소재 S노인복지관 부설 노인주간보호 센터를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여성노인들에게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는 10명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고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여성노인들의 관계적 공격성 척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Marsee, Kimons, Frick(2004)[15]이 제작한 자기보고형 포레갈 등척도를 한영경(2008)[16]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Marsee 등(2004)[15]의 포레갈등척도는 총 40개 문항, 4개 차원(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관심사는 관계적 공격성이기 때문에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차원 10문항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차원 10문항의 총 2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건이나 문제에 반응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관계적 공격성의 성향을 보여주는 차원이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확실히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5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ub-domains of the relational aggression scale, Questions and Reliability

subdomain	item number	question number	reliability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2, 4, 6, 8, 10, 12, 14, 16, 18, 20	10	.82
leading relational aggression	1, 3, 5, 7, 9, 11, 13, 15, 17, 19	10	.89
whole		20	.85

본 연구는 P시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여성노인들 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10명 전원이 여자였으며, 연령

은 71세가 2명, 72세가 4명, 73세가 1명, 75세가 1명, 76세가 1명, 78세가 1명이었다. 학력은 4명이 고졸 미만이었으며 6명이 고졸 이상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4명, 기독교가 2명, 천주교가 3명, 무교가 1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나 있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the Study (N=10)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
Gender	female	10 (100%)
age	71	2 (20%)
	72	4 (40%)
	73	1 (10%)
	75	1 (10%)
	76	1 (10%)
an academic career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s	4 (40%)
	high school graduate and above	6 (60%)
Religion	Buddhism	4 (40%)
	Christianity	2 (20%)
	Catholic	3 (30%)
	have no religion	1 (10%)

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결과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여공격성 척도 점수 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서열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은 표본의 크기가 작아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워 모수적 방법의 적용이 불가

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모수적 검정 방법이다.

관계적 공격성을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2.36(SD 0.34)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89(SD 0.08)로 0.47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5.308^{***}$, $P=.000$).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완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87(SD 0.18)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66(SD 0.08)으로 0.21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4.358^{**}$, $P=.002$).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관계적 공격성 사전 사후 결과 비교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 Relational aggressiveness of program participants Comparison of pre- and post-production results (N=10)

	subdomain	Dictionary M(SD)	Post M(SD)	Z	P
relational aggression Score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2.36(0.34)	1.89(0.08)	5.308***	.000
	leading relational aggression	1.87 (0.18)	1.66(0.08)	4.358**	.002
	whole	2.12 (0.26)	1.77 (0.07)	5.037**	.001

* $p<.05$ ** $p<.01$ *** $p<.001$

5. 결론

본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시 소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여성노인들 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Marsee 등(2004)의 또래갈등척도는 총 40개 문항, 4개 차원(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관심사는 관계적 공격성이기 때문에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차원 10문항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차원 10문항의 총 2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0.47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Z=5.308^{***}$, $P=.000$)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완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사후검사에서는 0.21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Z=4.358^{**}$, $P=.002$).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첫째,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들의 관계가 증진되고, 공격성이 완화되어 노인의 삶이 안정화 할 것이다.

둘째,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차문화치료를 실시한 후, 주가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현재의 해야 할 일과 관계를 만끽하여 노년기의 삶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계적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이 일상의 프로그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급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로서의 차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P시 기관이용노인을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에게 있어서 관계적 공격성은 자신, 타인 및 공동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이 노인들 간에 일고 있는 문제들을 반영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의 저하를 위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적 개입으로 다양한 회상프로그램과 동시에 노인들의 정서지원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개별화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노인들에 관한 직접적인 실천적 서비스는 단 회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서 지지와 사회관계 기술 습득에 병행되어 노년기에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실천적 개입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R.Y.Bae and J.Y. Choi, "The Effects of Emotional Abuse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 Mediating Effect of Friendship Problems,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and Anger Rumination -,"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2, No.1, pp.29-52, 2018.
- [2] E.S.Byun and J.Y.Lee,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on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 Medi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by Gende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8, No.4, pp.1125-1149 ,2016.
- [3] N.R.Crick, and J. K. Grotpeter,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66, pp.710-722. 1995.
- [4] S.S.Kang and W.K.Lim, "Effects of the Marital Conflict in Old Age on Elderly Divorce and Impulse to Commit a Crim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9, pp. 178-192, 2013.
- [5] Y.P.Moon and H.Y.Lee, "A Comparative Study on Policies of Elderly Abuse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on WHO, Main countries"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4, No.1, pp.67-95, 2017.
- [6] W.S.Jang, et, *Elderly Welfare Theory*, Yangseowon, 2012.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 [8] H.J.Lee,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of Daycare Centers for the Elderly", Graduate School of Sungkyul University, 2020.
- [9] Y.H.Jeong "Elderly Us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their Relational Aggression Damage Experiences :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pp.267-282, 2018.
- [10] H.K.Lee, M.R.Park and J.Y.Lee,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Adjustment and Attachment on the Re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Girls' Students Relational Aggression and Friendship Jealousy ",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2, No.3, pp.207-229, 2013.
- [11] E.S.Sim and D.H.Lee, "Relation between Friendship Jealousy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Middle School Girls: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nt Attribution and Peer Conform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4, No.2, pp.21-42, 2011.
- [12] J.S.Lee, "A study on the Female Students'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and the Parents' Rearing Attitude.", Major in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 [13] J.Y.Choi and Y.S.Heo, "Moral Judgment and Social

Interdependence according to Perception and Participant Role in Bullying Situ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5, No.6, pp.171-196, 2008.

- [14] Craig and Pepler, "Identifying and targeting risk for involvement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Vol.48, pp.577-582, 2003.
- [15] Marsee, M. A. Kimons, E. R, and Frick, P. J.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2004.
- [16] Y.K.Han, "The Relation of Psychological Variables to Relational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A dissertation above Ajou University's master's degree, 2008.

김 인 숙(In-Sook Kim)

[중심회원]



- 1998년 2월 : 부산대학교 가정학과(이학박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2월 ~ 2015년 2월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관심분야>

사회복지, 차문화치료, 사물인터넷, 평생교육 융합프로그램